

지 상 범 석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②

萬緣放下 一念不生
만연방하 일념불생
是參禪的先決條件 我們既然知道了
是參禪的先決條件 我們既然知道了
那末 如何不能做到呢
那末 如何不能做到呢
나말 여하불능주도니
나말 여하불능주도니
上焉者 一念永歇
上焉者 一念永歇
상언자 일념영멸
상언자 일념영멸
直至無生 頓證菩提 毫無絲毫
直至無生 頓證菩提 毫無絲毫
직지무생 톤증보리 호무라색

안위함이 일개치지도의
這樣才算放下 一放下一切放下
這樣才算放下 一放下一切放下
저양재산방하 일방하일체방하
저양재산방하 일방하일체방하
永永放下 叫作萬緣放下 萬緣放下了
永永放下 叫作萬緣放下 萬緣放下了
영영방하 규작만연방하 만연방하로
영영방하 규작만연방하 만연방하로
妄想自消 分別不起 執着遠離
妄想自消 分別不起 執着遠離
망상자소 분별불기 집착원리
망상자소 분별불기 집착원리

마치 바다에 뜬 물거품과 같아 (파도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걸립없
는 본체는 일체 환영같은 일의 생주이
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생주이멸을 따라 일어나는 좋아
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생각을
몽땅 내려놓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부
동심이 되면 자연히 육근육진 식심이
사지질 것이며 삼독심·갈애도 없어질
것이다.

또 육신으로 오는 고통과 즐거움, 굶
주림과 추위, 포만과 따뜻함,
영육과 생사 길흉화복, 할뜰음과 청
찬, 업과 양을, 안위 따위를 모두 나
와는 상관없다고 믿어놓도
이런 일에 씬을 따지는 것도 놓고 하
나도 놓고 일체도 놓고
영영 놓아서 모든 반연을 놓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되면 (비로소) 만
연을 물락 놓은 것이다.

모든 반연을 놓아 한 생각도 일지 않
는다는 이것이 참선의 선결조건임을 우
리들이 이미 알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다를 수 없다가했는가.
위에서 한 생각이 영원히 쉬면 곧바
로 무생법인을 단박에 증득하여 털끝만
끝도 매일 게 없다가했다.

其次則以理除事 徹知自性本來清淨
기차칙이리제사 료지자성본래청정
煩惱皆隨 生死而遷變
煩惱皆隨 生死而遷變
번뇌보리 생사열반
번뇌보리 생사열반
皆是假名 原不與我自性相干
皆是假名 原不與我自性相干
개시가명 원불여자성상우
개시가명 원불여자성상우
事事物物 皆是夢幻泡影
事事物物 皆是夢幻泡影
사사물물 개시몽환포영
사사물물 개시몽환포영
我此四大色身 與山河大地 在自性中
我此四大色身 與山河大地 在自性中

일체사물 다 나의 성품 가운데 있으니
생각 몽땅 놓으면 삼독심 자연히 소멸

아차사대색신 여산하대지 재자성중

(그렇게 한 생각 원) 다음에 이치로
써 사물을 다스리면(경계를 놓아가면)
제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알게 될 것이
다.

번뇌니 보리니, 생사니 열반이니는 이
모두 거짓 이름일 뿐이라 원래 나와 자
성이 다르지 않다.

일체의 사물은 다 꿈·거짓·물거
품·그림자 같은 것이다.

나의 이 사대색신, 산하대지는 다
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으로

如海中的浮漚一樣 隨起隨滅 無碍本體
여해중적부구일양 수기수멸 무애본체
不礙一切及一切的生住異滅
不礙一切及一切的生住異滅
불응수일체환사적생주이멸
불응수일체환사적생주이멸
而起欣厭礙定通身放下 如死人一樣
而起欣厭礙定通身放下 如死人一樣
이기흔염위사통신방하 여사인일양
이기흔염위사통신방하 여사인일양
自然獲證真心消落 貪嗔癡愛成滅
自然獲證真心消落 貪嗔癡愛成滅
자연근진식소사탁 탐진치애민멸
자연근진식소사탁 탐진치애민멸
所有這身子的 痛癢苦樂 飢寒飽暖
所有這身子的 痛癢苦樂 飢寒飽暖
소유제신자적 통양고락 기한포난
소유제신자적 통양고락 기한포난
榮辱生死 禍福吉凶 毀譽得喪
榮辱生死 禍福吉凶 毀譽得喪
영육생사 화복길흉 해예득상
영육생사 화복길흉 해예득상
安爲滄夷 一觀量之度外
安爲滄夷 一觀量之度外

(그리되면)망상은 절로 소멸되고 분
별심이 일지않으며 집착은 멀리 떨어져
나갈 것이다.

至此一念不生 自性光明 全體顯露
지차일념불생 자성광명 전체현로
至是參禪的 條件 具備了
至是參禪的 條件 具備了
지시참선적 조건 구비로
지시참선적 조건 구비로
再用功真參實究 明心見性才有分
再用功真參實究 明心見性才有分
재용공진참실구 명심견성재유분
재용공진참실구 명심견성재유분
日來常有禪人來問話
日來常有禪人來問話
일래상유선인래문화
일래상유선인래문화
夫法本無法 一落高途 即非實義
夫法本無法 一落高途 即非實義
부법본무법 일락안전 즉비실의

이에 이르면 한 생각도 일지 않아 참
성품의 빛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참선의 선결조건을 구비하기에 이르
러 다시 힘을 기울여 진실로 참구하여
실답게 공부하면 마음을 밝혀 참 성품
을 볼 수 있게 된다.

요즈음 참선하는 이들이 찾아와 늘
물는데

무릇 법은 본래 법이라 이름할게 없
으며 한말 앞에 떨어지면 곧 실다운 뜻
이 아니라고 하고

龍眼

불교는 오늘을 살며 오늘을 완성하는 종
교입니다.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야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내세는 아직 오지않
은 세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지난
과거에 연연하고 오지않는 미래를 기대하
고 걱정하다가 정작 중요한 오늘을 놓쳐버
리고 맙니다. 옛날 중국의 한 노스님은 “지
금을 내어놓고 달리 때를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는 언제나 지금 오늘
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이
란 과거에 우리가 오로지 기다렸던 내일입
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은 영원히 지금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벗퍼센트
나 살아있습니까?

도를 얻기 위해 굳이 출가할 필요는 없
습니다. 유마거사는 “너희들이 무상보리심
을 일으키면 이것이 곧 출가요 구족(具足)
이니라” 하였고 만혜스님은 “출가의 진의는
가족을 떠나 산중에 들어가는 형식을 말함
이 아니라 보리심을 발하여 남은 고집들을
떠남”이라 하셨습니다. 이 근본뜻을 자각한
다면 “처자식이 있어서 나는 출가하지 못
한다” “가정주부라서 출가할 수 없다”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출가
란 생활 한가운데서 보리심을 발하는 것입
니다. 내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면 더불어

“삼독심에 사로잡혀
자기개선하지 않으면
영멸·참선 일삼아도
부처님 닮을 수 없어요”

그 빛이 온누리에 퍼져가고 공극에는 무에
자재한 자리에 드는 것이니 이것이 출가의
공덕입니다. 삼독심에 사로잡혀 자기를 개
선하지 않고 아무리 절에 나와 영멸, 독경,
참선을 일삼는다 하여도 부처님과는 거리
가 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나를
떠나 백유순 밖에 멀리 가 있더라도 만약
에 그가 격한 욕망에 불타지 않고 성내는
생각을 품지 않으며 사된 견해에 사로 잡
히지않고 방일하지 않으며 항상 깨달아 도
심에 견고하며 능히 마음이 한 경계에 머
무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자다. 이는 곧 법
을 보는 사람이며, 법을 보는자는 진실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다보면 생활속에서 일어나
는 모든 현상이 다 인연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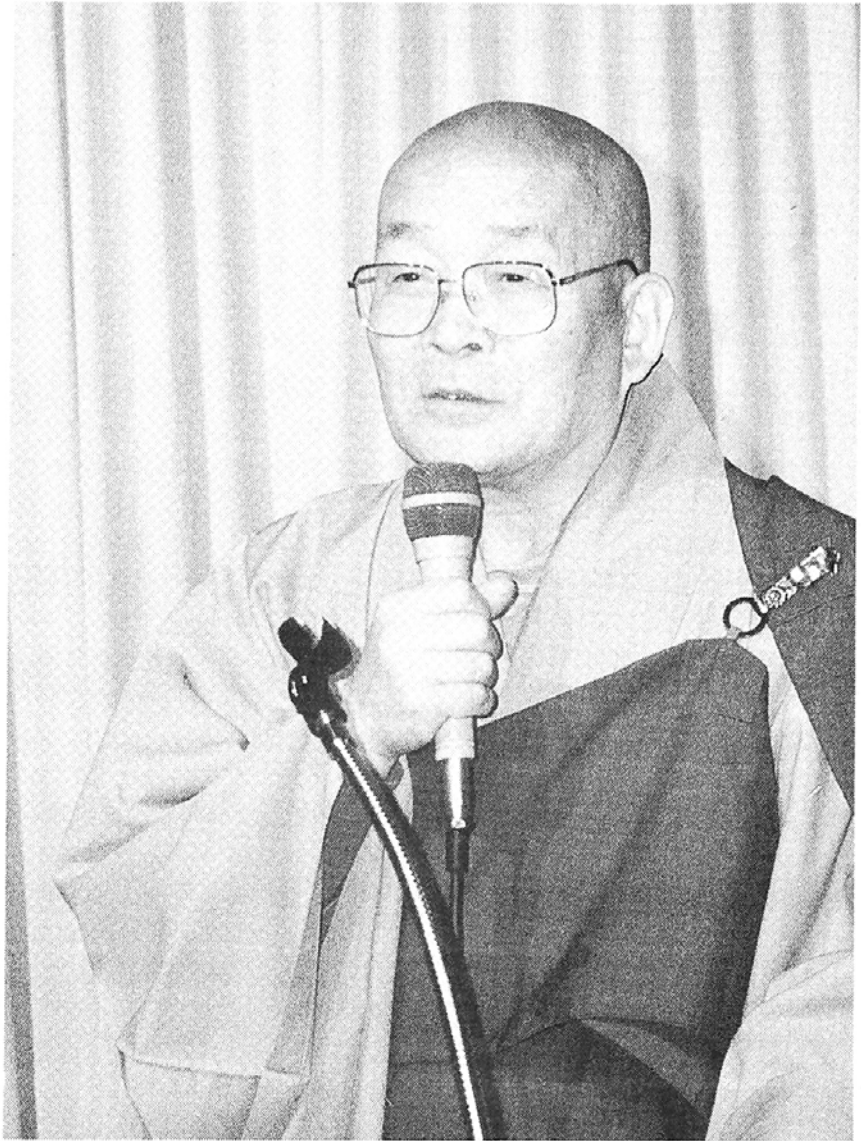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가 뿌린
것이다.’

이러한 인과(因果)의 법칙을 모르는 불
자는 아마도 없을겁니다. 인과는 부처님이
설하신 우주의 근본질서이자 원리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
으며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이 원리는 만고에 불변한 법칙입
니다.

원명스님 (대구광역시)
대구 광범사 주지

약력

- 1930년 경북 김천 생
송광사에서 구산스님 은사로
도도
송광사 주지
역임
대구대학교육원
원장역임
현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전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다.(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내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에 짓는
이것이다.(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
인과의 원리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
정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공평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인생에 전개되는 행·불행
들이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많습니. 좋은일, 행복한 일들은 자기
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상적으로 좋지않
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상대를 탓하고 사회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빠졌나’ ‘누구 때문에 불행해졌
나’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인과의 도리를 자각하지 못한 자가

자신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놓는 격인
니다. 절에 나오는 불자들이라면 먼저 이
부분에 철저히 해야합니다. 일어나는 모든일
을 철저히 내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아예 우연은 없다고 믿는 것
이 좋습니다. 지금 병·불행·불화등을 현
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퍼
한 형태를 한 경우이든 지난날 내마음 작
용의 결과로써 드러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
다. 주체는 지난날의 자기마음이었는데 그
결과로써 드러난 그림자를 볼듯하고 미워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불자들 가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일 앞에 ‘우연이
있다’고 믿는 것, ‘누구때문이다’고 말하는
것은 불자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신앙’을

열심히 사는 사람일뿐 진실한 불자는 아닙
니다. 진리를 적당히 자기식으로 취어서 유
용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자기내용인줄 모
르고 그 책임을 바깥으로 열심히 전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제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유심소현(有心所現)의 세계에
서 전개되는 인과의 법칙을 선명하게 안내
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신앙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사람은 영
터리 불자일뿐 근본적인 자기개선을 이룩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우위에 두고 말한
마디 행동거지 하나도 수행으로 여기며 철
저히 사는 사람은 지난날의 업력도 쉽게
벗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은 거대한 우주의 방승곡과 같습니다. 도처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팔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장한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법구경 1 2

오소 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매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리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소 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았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
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생불
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셔 지음 / 손민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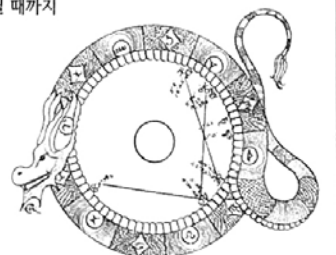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안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
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
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셔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한다.

-달라이 라마-

신국판/280면/값 6,000원



대일출판사

출판회보 보내주시면 할 가격이 보였습니다